

2016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4

교회의 하락

(3)

첫째가는 사랑을 버림

성경: 계 2:1-5, 엡 3:16-19, 5:2, 6:24, 아 7:11-12, 8:6-7

I.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계 2:4.

- A. 비록 에베소 교회가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락했다—계 2:1-4.
- B. 4 절의 ‘첫째가는’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누가 복음 15 장 22 절의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제일 좋은 사랑임에 틀림 없다.
- C.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 1:23)는 생명의 문제이고, 새 사람(엡 2:15)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인 교회는 사랑의 문제이다(엡 5:2, 25, 6:24).
1.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엡 3:16-19.
 - a.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요소, 곧 내적 실질이다—요일 4:8, 16.
 - b.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실질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2.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릴 때, 교회의 하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계 2:4.
 - a. 비록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를 했고, 주님을 위해 수고했으며, 고난을 견디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지만,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계 2:2-4.
 - b. 오늘날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 (1)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며,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옳바르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갖지 않을 수 있다.
 - (2) 일단 우리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게 되면 우리의 하락이 시작된다.
- D.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계 2:5.
1.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엡 3:19, 4:16, 고후 5:14-15, 20.
3.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야 한다—아 7:11-12.

II.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와의 합당한 관계 안에 지킬 수 있다—막 12:30, 고전 2:9, 아 8:6-7.

- A.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롬 5:5.
 1.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신 신성한 본질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이다.
 2. 거듭난 사람들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요 1:12-13, 3:3, 5, 6, 요일 4:8, 16.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딤후 1:5, 딤후 2:22.
- B.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분께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게 한다.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요일 4:8, 16, 19.
- C.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감상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향하며,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가는 사랑을 드리고, 그분과 하나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찬송가 366 장 (영한 동번 477 장) 2 절.
- D. 신성한 로맨스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구애하는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반응하는 애정어린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이러한 반응하는 애정어린 사랑이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과 그분의 사랑 사이에 있는 사랑의 묘사를 본다—아 1:2-4, 고후 5:14-15, 요 14:21, 23.
 2. 아가서의 주제는 탁월한 구애와 결혼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이다. 아가서는 개인적인 믿는이가 갖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의 점진적인 체험을 제시한다—아 1:2.
 - a. 아가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그분의 사랑 사이의 결혼의 사랑을 시적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아 2:4, 6:3, 7:11-12, 8:6-7, 14.
 - b.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가질 것이다—고후 5:14-15, 3:18.
 - c. 아가서의 추구하는 이는 그녀의 사랑하는 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며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를 갖는다—아 1:9, 15, 2:2, 14, 3:6-7, 4:7, 6:4, 10, 13.
 3.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 8:6-7.
 - a. 주님의 사랑은 시험으로 꺼지지 않고, 박해로 삼켜지지 않으며, 어떤 재물로 대치될 수도 없다—롬 8:35-39, 고전 13:1-3.
 - b. “불같이 뜨거운 주 사랑 내 마음 불사르네” “오 내 맘속에 타오르는 주 예수의 사랑 다른 사랑 다 제하도록 밤낮으로 태우소서”—찬송가 169 장 (영한동번 208 장) 2 절과 4 절.